

# 사라진 담장·철조망·감시탑...“교도소 맞아?”

### 45년만에 새 터 잡은 삼각동 광주교도소 가보니

## 철커덕 대는 잠금장치도 없어져 밝고 쾌적 3~5인 소형실 2배 늘려 인권친화적 시설

“이게 교도소야? 대학 캠퍼스처럼 아늑하네. 담장도 없고...”

광주교도소가 확 바뀌었다. 바깥 세상과 격리를 의미하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 감시 첩탐이 상정하던 교도소가 대학 캠퍼스 같은 아담한 건물과 벤치가 놓여 아늑해졌다. 내부도 철창을 제외하면 어느 고시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는 19일 45년간의 문흥동 시대를 마감하고 광주시 북구 삼각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광주교도소가 7일 오전 언론에 첫 공개됐다.

신축된 광주교도소는 28만7000㎡ 부지에 연 면적 4만9000㎡ 규모로 지어졌다. 기존 문흥동 교도소보다 부지(10만6000여㎡)는 2.7배, 건물 연면적(2만8000여㎡)은 1.7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 1999년 4월 광주시가 도시외곽으로의 이전 요청으로 본격화돼 2010년 6월 1147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착공했다.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재소자를 관리하는 정사동과 판결이 확정된 재소자가 생활하는 기결동, 아직 재판 중인 사람들을 위한 미결동 등 22개의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처음 맞닿은 광주교도소 청사동은 마치 대학 캠퍼스나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모습이었다. 담장도 철조망도 첩탐도 모두 사라졌다.

건물이 곧 담장인 셈이다. 버스 한대 드나들 공간만 트인 건물 사이로 들어가니 보안동이였다. 오른쪽은 미결수, 왼쪽은 기결수가 생활하는 곳이다.

음산하고 어두웠던 문흥동 보안동은 낯익은 복도와 흰색·아이보리색의 벽면으로 환했다. 4층문을 통과하니 미결수들이 생활하는 공동시설과 수용거실이 있다. 공동시설에는 5개의 온수통이 줄지어 있다. 커피판과 커피·녹차 등을 먹고 마실 수 있

도록 준비한 온수통이란다.

수용거실은 1인실과 3인실, 5인실로 구분돼 있다. 모든 방은 깔끔한 온돌바닥에 작은 책상, TV 시청을 위한 평면 모니터, 한 칸에 딸린 수세식 화장실과 세면시설이 있다. 5.04㎡의 독거실(1인실)은 철창을 빼면 어느 고시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3.15㎡의 5인실도 독거실과 크기만 다를 뿐 같았다.

육중한 방문과 철커덕대는 잠금장치도 사라졌다. 제어시스템으로 일을 여담을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은 밖에서는 열 수 있지만 안에서는 절대 열 수 없게 설계돼 있다.

광주교도소 측은 수용자 인권 친화적인 시설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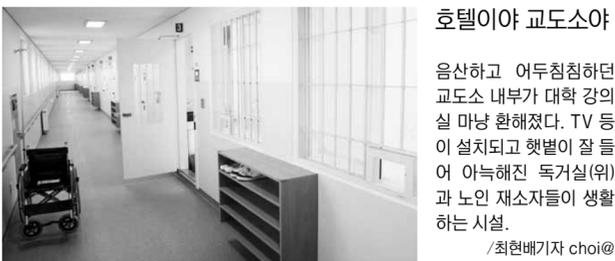
기존 문흥동 교도소와 다르게 지열을 이용한 에어컨 및 각 사무실 공조시스템, 수용거실 바닥 온수난방, 수용동 별 온수 샤워시설, 수용자 혈액투석실 등을 갖추고 있다. 장애인들의 수용거실에는 문턱을 없애고 노인 수용동의 복도는 넘어질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했다.

특히, 10인실 위주의 옛 시설과는 달리 3~5인실의 소형화된 수용거실을 갖추고 있다. 독거실(1인 거실) 또한 옛 시설(33.8%)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62.5%를 차지하고 있다. 수용인들이 선호하는 1인 거실의 사용자는 상담 등을 통해 결정된다.

수형자들은 본인 부담으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다. 또 교정본부 방송국에서 전송하는 뉴스·드라마·다큐멘터리도 TV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다.

장기수들이 가족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족과 하룻밤을 생활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미결수들을 위한 가족접견실도 갖췄다.

장보의 광주교도소장은 “수용자 인권 친화적인 시설에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용자들이 성공적으로



호텔이냐 교도소야

음산하고 어두웠던 교도소 내부가 대학 강의실 마냥 환해졌다. TV 등이 설치되고 햇빛이 잘 들어 아늑해진 독거실(위)과 노인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시설.

최현배기자 choi@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사동 주변에는 7~8m 높이의 철제 울타리가 세워져 있고, 울타리에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센서가 작동해 주변 CCTV가 집중됨과 동시에 경고음·경고방송이 울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경찰·군 공조 19일 하룻만에 1700여명 옮겨

### 수형자 이송 어떻게

광주교도소에 있는 미결수 900여명, 기결수 800여명 등 1700여명은 19일 하룻만에 모두 이사하게 된다.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물품들은 사전에 옮기고, 이사 당일에는 입고 있는 옷과 세면도구만 챙겨 이동한다.

광주교도소는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현재 이사업체가 현 문흥동 교도소의 물품을 옮기고 있어, 혹시나 수형자가 이들과

섞여 탈주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수형자들을 실은 수백대의 차량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 이송된다. 이송에는 경찰은 물론 31사단도 공조해 이뤄진다. 앞서 수차례 모의훈련도 마쳤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보안문제 때문에 19일 하룻만에 모든 수형자를 이송해야 한다”며 “경찰, 군과 공조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수입증지 대금 역대 횡령 순천시 공무원 수사

순천경찰은 순천시 이공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박모(여·38)씨가 3년여 동안 수입증지 대금 1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순천시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있는 순천시 이공민원실에 근무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받는 수입증지 대금을 하루 평균 10~20만원씩, 3년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다. 박씨는 최근 횡령했던 금액을 모두 순천시에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연가를 낸 박씨의 업무를 대리한 다른 직원이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감사에 나선 순천시는 박씨를 대기발령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과실 여부도 조사 중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14년 미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 재송치...범인 밝혀낼까

### 수법·외상 등 추가 증거 제시 검찰 어떤 판단 내릴지 주목

경찰이 14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1년 만에 검찰에 재송치했다.

이 사건은 살해당한 여성의 몸에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됐음에도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나주경찰은 “지난 2001년 2월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A(당시 17세)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모(38)씨를 강간 살인 혐의로 이날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현재 강도 살인 및 사제유기 혐의로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7개월 동안 전담반을 편성해 이 사건을 재수사해온 경찰은 ‘비슷한 범행 수법’, ‘다수의 외상’, ‘용의자의 진술 반복과 통신기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대검찰청으로부터 A양의 체내에서 검출된 DNA와 김씨의 DNA가 일치하는 통보를 받고, 김씨를 강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4년 10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우선 김씨가 지난 2003년 저지른 ‘전당포 살인사건’의 범행과 증거 인멸 수법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

다. 김씨는 당시 두 명의 남성을 살해한 후 이들의 옷을 모두 벗겨 따로 파묻었다. A양 역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강에서 발견됐고, 옷은 끝내 찾지 못했다.

처음에는 피해 여고생을 모른다면 김씨가 최근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을 바꾸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정황 증거다.

경찰은 당시 여고생이 생리중이었다는 사실을 재수사에서 처음 확인했고,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여고생의 몸에서는 김씨의 DNA 이외에 다른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여고생의 사체에서 다수의 외상을 확인했다. 당시 여고생의 사인은 익사로 드러났지만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몸 곳곳에서 외상이 다수 발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씨와 피해 여고생의 전화 등 통신기록이 없다는 것도 경찰이 의문시하는 부분이다. 당시 피해 여고생은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뒤 사라졌고, 김씨도 경찰에서 “채팅을 통해 여고생을 만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수사 초기에 ‘평소 만나오던 애인 중 한 명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통신기록도 없이 여성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 소녀상’ 건립 단체 대표, 후원금 사적 사용 논란

‘광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단체 대표가 시민들의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A씨는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단체 대표 B씨가 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내용의 담근 글을 올렸다.

B씨와 함께 건립 주도 등 봉사활동을 해온 A씨는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며 “개인 기부 등을 통해 들어온 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청년봉사활동을 만들어

올 초부터 크라우드 펀딩과 개인 후원을 통해 소녀상 건립비 2000여만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400여만원을 소녀상 제작과 교통비 등으로 사용했다.

B씨는 지난 6일 해명 글을 올리고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니 어린 마음에 친구한테 잡다 해도 한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등 어느 순간 ‘이 정도는 괜찮겠다’하고 일부를 써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모금액을 모두 복지시설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도박 혐의 소환 30대, 경찰서에서 뇌물 건네려다 쇠고랑

### 성다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자금관리책으로 소환 조사를 받던 30대가 경찰서 복도에서 ‘대담하게’ 담당 경찰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려다가 쇠고랑

○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을 근거지로 불법 인터넷 도박판을 운영해온 나모(33)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40분에 광주지방경찰청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을 밖으로

불러내 2000만원을 건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가 그 자리에서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체포된 뒤 결국 구속됐다는 것.

○나씨는 이날 4시간의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수사관을 경찰청 복도로 불러내 “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돈인데 드리고 싶다”는 제안을 던졌다가 도박장 개장 혐의 외에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가 추가돼 가장 처벌받지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4억 5천**

**수익성 상가** <상무지구 오피스텔>

- 상무지구 정연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2천,월7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보5백,월 45만) 임대완료 → 매가 8천 5백만
- 북구 중흥동 원통 상가 (전대 정문2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3층 상가 매매**  
(수완동, 4층중 3층)

**85평**

**신한은행 뒷편**  
(상가 밀집지역)  
**모아엘가 앞** (6천세대 밀집)

보 3천, 월수익 **180만**  
(용 2억5천만) 실투자 → **1억**

**매가 3억 7천**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 6층 (45평) (보 1천,월60만) 임대완료 (용 5천) → 매가 1억 1천만
- 나주 삼영동 (영산포) 2층상가 매매 월수익 200만(용 1억 2천) → 매가 2억 9천만
-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 5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매매(오피스텔)

-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 앞 (용5천/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용4천/보5백, 월42만) → 매가 7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8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5천만
- 수완지구 3층상가(85평) 신한은행뒷편,모아A.P.T 6,000세대 앞 (용 2억5천/보3천, 월수익 180만) → 매가 3억8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을지루,전망좋은,임대완료 (용5천/보1천, 월60만) → 매가 1억1천만
- 서구 성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역1번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억8천만
-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 광양 광영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3천8백만

**법률경매**

**수익성상가(근린상가/근부상상가)**

- 서구 치평동 (토15평,건90평)감정가 6억3천5백~최저가 4억4천
- 동구 금동 (토19평,건149평)감정가 5억1천~최저가 9천3백
- 동구 금동 (토18평,건 134평)감정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
- 서구 치평동 4층중3층(토 4.2평,건18.6평)감정가 2억9백~최저가9천3백
- 서구 치평동 (토30평,건56평)감정가 3억93천~최저가 1억8천(지하)
- 광산수원(토122평,건78평)감정가16억2천~최저가19억
- 북구신원동(토32평,건48평)감정가4억2백~최저가1억8천
- 서구 치평동 (토3평,건133평) 감정가 2억3천9백~ 최저가 1억3천만

**수익성상가(근린주택,오피스텔)**

- 서구 금호동 (토 63평,건1111평)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3억3천
- 동구학동 (토138평,건545평)감정가 23억~16억

**수익성상가(근린시설,통천동)**

- 북구 누문동(토305평,건238평)감정가 11억7천~8억2천
- 광산구 남산동(토258평,건150평)감정가4억8천~최저가 2억6천8백
- 북구 중흥동 (120평,530평)감정가13억7천~최저가 6억1천5백
-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감정가 1억7천~최저가 6억
- 서구 농성동 (토 86평,건263평)감정가 5억7천~최저가 4억
- 북구 구하동(토337평,건509평)감정가 22억3천~최저가 15억6천
- 광산구 쌍림동 (정례식장) (토 516평,건920평) 감정가 36억7천~ 최저가 29억
- 서구 광천동 (토지 76평,건86평) 감정가 3억2천~3억2천

**모텔/주유소**

- 광산구 쌍림동(숙박시설)토357평,건680평)감정가27억~최저가15억
- 광산구 쌍림동(숙박시설) (토154평,건419평)감정가 15억~최저가 8억4천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010-7384-7800 /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